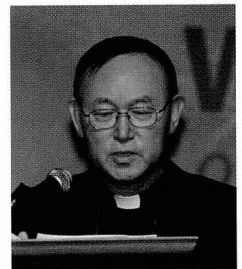


# 의료선교

Evangelization in Medicine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사목센터소장 김중호 신부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 지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얻은 것을 거저 주어라”(마태10, 8)하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순회하시면서 하느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니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로잡힌 이들에게 해방을 눈먼 이들에게 눈 뜰 것을 선포하며 억눌린 이들을 풀어 보내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자렛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셨다. (루가 4, 18-19)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해방의 소식을 선포하셨고, 고통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병

과 부상을 치료하심으로 그를 증명하셨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직분을 같이 수행하였으며,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려고 노력할 때 반드시 복음 전파를 같이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와 한국 가톨릭 의사사회에서는 1988년부터 남미 에콰도르 팔마의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해왔다. 그 곳에서 우리는 과거에 한

국민들이 경험했던 불쌍한 빈곤을 다시 목격했다. 이 지역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었고, 일 년에 2~3주 한국에서 오는 의료진이 고작이었다. 의료진은 임상병리 장비와 이동식 X-선 사진 촬영기를 마련했고, 약국을 만들어 스스로 약을 지을 수 있게 했다.

1992년에는 케냐의 지방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 때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요셉과 수녀가 오랫동안 이동진료소를 운영해왔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였다. 요셉과 수녀는 기생충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지역민들을 교육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3만 달러의 원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는 몽골과 콜롬비아의 시골지역을 방문하여 빈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해왔다.

우리 의료 선진국들이 세계 많은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질환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일임은 자주 강조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의료지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얻은 것을 거저 주어라”(마태10, 8)하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기독교 삼천 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선교는 우리 하느님께서 주신 의료 기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치유의 능력으로 손에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가야 하겠다.

